

4·11 총선 돋보기

(5) 후보들 이동거리

농어촌 하루평균 300km... 파김치 일쑤

전남 농어촌지역의 총선 후보자는 유독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3개 군이 통합된 선거구가 많아 때문이다.

무안·신안, 해남·진도·완도, 강진·영암·장흥, 담양·곡성·구례, 장성·영광·함평 등이 후보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표적 선거구. 광주시의 경우, 차로 이동하면 30분 내에 선거구 내 어디든 도착할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은 지근거리라야 30분내고 심한 경우 3시간, 특히 배를 타야 하는 도서지역의 경우는 한나절이 걸려야 목표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지역 후보들의 하루 평균 차 이동거리는 3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배를 이용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걸어다니는 거리를 계산하면 최장 이동거리는 400km를 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후보자들이 전했다.

때문에 일정을 잘 짜서 한 군 내에서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유권자 250명 가거도까지 뺀길 4시간 반

농부들이 준 막걸리 넘죽 마시다 취하기도

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후보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차 유권자들 대부분은 낮에 논과 밭 등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논두렁 선거운동'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새참을 먹는 농부들로부터 막걸리를 한두잔 받아 마시다 적지 않게 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담양·곡성·구례의 이계호 예비후보는 "차에서 내려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가며 유권자를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하다 보면 파김치가 된다"며 "선거운동에는 강철 체력이 필수란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해남·진도·완도는 단순 거리만 계산하면 가장 멀리 펼쳐진 지역이다. 진도 본섬 끝에서 완도 본섬 끝

까지 가는데만 2시간30분에서 3시간이 걸린다.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작은 섬까지 가야하는 일이 허다해 자동차도 심심치 않게 배를 이용한다고 한다.

김영록 의원 비서관인 강인석씨는 "지난 18대 총선 때는 완도 청산도에서 진도 조도까지 간 일도 있었는데 꼬박 한 나절이 걸렸다"며 "후보가 피곤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선거운동을 마치고 나면 차에 탈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신안은 1004개의 섬이 있는 지역으로 여편이 퍼지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선거운동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못 가본 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섬에 갔다가 자칫 큰 바람이라도 불면 섬에 묶여 그날 일정을 모두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후보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윤석 의원은 "신안군은 땅과 바다를 합칠 경우 서울 면적의 2배나 되는 지역"이라며 "250여명의 유권자가 있는 신안의 끝섬 가거도(소흑산도)의 경우 목포에서 배로만 4시간 반이나 걸리지만 4~5번은 다녀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지역이지만 여수도 섬이 317개나 된다. 그 중 유인도가 46개나 돼 선거운동이 만만치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여수의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여수의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도시라고 권한 선거운동을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며 "여수는 전국 도시 선거구 중 가장 선거운동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hange 2012 광주연대'는 16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 강당에서 총선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권연대로 일대일 구도돼야 총선 승리”

'Change 2012 광주연대' 총선 대응방안 토론회

4·11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보상대인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해 여야간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민주노동당 등 광주지역 60개 단체로 구성된 'Change 2012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는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 강당에서 '호남정치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총선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창 전 고구려대 교수는 "민주통합당은 촛불정국·미더버들 등과 관련, 투쟁성을 보여주

지 못했다. 광주·전남 정치인들은 공적이야말로 사적이의를 챙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민사회단체도 변화로 주도하지 못하는 등 제약할을 하지 못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혁신과 야권연대가 절실한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발제자로 나선 김강렬 광주연대 공동상집위원장장은 "야권연대는 총선 승리의 토대이자 정권교체의 출

발점"이라며 "야권연대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보조발제자인 서정훈 광주 NGO 센터장은 "이번 총선 승리와 호남정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여야간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좋은 후보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연대와 연계해 유권자 참여 운동(SNS 참여운동)·유권자 심판(좋은 후보, 걸림돌 후보 선정)운동 등 전국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광주연대는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시민·사회가 공동연대 한 한시적 기구다. /이종형기자 golee@

‘리틀 노무현’ 김두관 대선행보 신호탄?

4년만에 민주 복당... 지지그룹 광주 등에 사무실

김두관 경남지사가 16일 통합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올 총·대선 국면에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 지사는 유력한 차차기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대선 출마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입당에 대한 행보에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경남 남해의 이장·군수 출신인 김 지사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2006년 경남지사 선거 패배,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2008년 총선 낙선 등 쓰라림을 맞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부활했다. 또 이날 4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선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발언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선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이미 김 지사 지지그룹이 서울 여의도와 광주 등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김 지사는 경남에서 야권이 참여하는 지방공공단체를 운영해 미래의 정권운영 모델인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적으로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온 경험이 있다"며 "대선 출마(여부)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한명숙 대표 과로로 병원 입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6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두관 경남지사의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서울시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고(故) 김근배 상임고문의 49세 추모 미사에 들었다.

한 대표는 추모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오후 정밀검사를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지난해 말 지도부 경선시 시작된 뒤부터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강행군했다"면서 "피로누적으로 몸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태희 전 실장 베이징서 北 접촉

지난 2~4일 참사관 만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6일 "임 전 실장이 일행 1명과 함께 북한 대사관과 참사관 2명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동행한 인물은 북한 전문가 겸 사업가로 알려진

유모 씨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임 전 실장이 북한 측 인사들에게 북한 측이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서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

동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이번에도 북한 측 실무인사 접촉을 통해 '상부'와 만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실장 일행은 베이징 체류 기간에 과거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접촉인사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사적인 방문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만 확인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 교도소 화재 사망자 350명 넘어

중미 온두라스의 한 교도소에서 불이 나 재소자 수백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온두라스 법무부의 고위관계자인 다닐리아 페데라는 14일(현지시간) 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북쪽으로 90

km 떨어진 코마야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59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다닐로 오레야나 현지 교정본부장은 "시신들을 교도소에서 수습하고 있다"며 많은 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최근 10년간 교도소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불은 14일 밤 10시 50분경 시작돼 3시간만에 진화됐으며 당국은 재소자의 방화나 전기 합선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온두라스는 인구 10만명당 살인범 죄율이 81.2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교도소는 넘쳐서 범죄자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사주명리학: 광주시내 평생교육원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확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하고 집에서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주강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아간	3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 초급	3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고급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2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2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력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이 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월 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영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량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월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042호)